

장시 누리에 울려가는 2월의 노래여

온 누리를 따스히 품어안는
태양의 해 살이런가
지구의 한끌까지 빛발치는
2월의 물빛이여

눈부신 그 불빛에 쌔여
세상 어디서나 바라보이는 내 조국
이역땅에서 더 사무치게 알았노라
그대의 존엄 그대의 강대함을
우리 모신 어버이의 그 위대함임을

대통과 대양을 넘어 굽이치는
축원의 꽃물결속에
내 소리높이 터치노라
온 세상이 우러르는
위대한 선군대양의 노래

우리 장군님의 노래를

1

그리워
2월의 이 아침엔
더더욱 못견디게 그리워
며나먼 조국의 하늘가를 우러러
이 마음 한말음에 달려가 안기는
아버지 장군님의 품

붉게 타는 저 노을에도
인자하신 그이의 미소가 어린듯
불어오는 한풀기 바람결조차
다정하신 그 음성을 신고 오는듯

가까이 있어도
그리운 그 품

멀리에 있으니 더 사무치게 그리워
대통령이 대양건너 만리끝에 있어도

순간도 떠나지 산적 없나니

날마다 날아오고 날아오는

조국의 신물들은

아버지 장군님

우리에게 정을 담아 부치시는

편지이면

서둘러 신문을 펼쳐들면
장마다 가득히 실린 장군님소식

강성대국의 리정표를 세우시고
인민생활항상에서 비약을 일으키며

새해의 총공격전을 이끄시는 그이
모습

서해기슭

현대적인 유리병공장의 구내길이
동해천리

비날로도시의 새벽길로 이어지고
또다시 그렇게 시작되고 이어지는

빨찌산공격전의 길

눈알엔 보여도누나

준엄했던 고난의 그 나날

조국수호의 의지를 벼리시며

철령을 넘으셨듯이

조국번영의 신념을 달려온

그이 몇번이나 넘으셨던

희천의 험준한 그 행길이

희천아

내 하루에도 그 몇번

장군님의 그 자속자속을 새기며

이 마음 달려가는 땅

고향의 지명처럼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들과
결전의 불이 치솟는 발전소건설장아

그이께서 서제시던

조암수조장과 통령언제
그이께서 친히 들어가시여

오래 동안 경쟁을 쓸어보셨던

석수내리는 그 물길줄에

내 마음 뜨거움에 젖어 섰노라

공기조차 얼어붙는듯싶던 그날

엄혹한 강추위속에서

두렵게 성애가 불리었던

그이의 애전복자락에 얼굴을 묻어

보며

하염없이 솟구친던 눈물이여

오늘도 귀전에 들려오누나

꿈에도 봄고신던 장군님

가파롭고 바람세찬 산중에 모신

쇠스러움을 금할수 없어

병사를 목에 어이없이 그 목소리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이제 더는 이런 찬눈길

이런 험한 길을 걸지 말아주실

시오!

병사들의 그 절절한 목소리에

천년을 만년을 말없이 솟아있던

아야한 산봉우리들도

태고의 정적을 풀어헤치며

쏴 — 쏴

격정에 설레이지 않았더냐

자신이 아니 가시면

강성대국에로 가는 길이 늦어

지기에

대고조의 불길 치솟는 전투장들에

최고사령관의 위치를 정하시고

조국의 만년부강번영의 길을

넓히고 다져가는

위대한 백두산장군이시여

공격에서 공격으로

세기와 세기를 주름잡으시는

그이의 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그 자속자속에서 희천속도가 창조

되어

변이 나는 조국땅 그 어메나

메아리치는

혁신과 기적의 산울림

아, 조국이여 그대는

우리 장군님 창조의 큰 봉으로

금수강산을 펼치시는 노래

아름다운 명화이런가

그 순길로 지워하시는

전변의 교향곡 그 울림이란가

얼마나 장쾌한 소식들이나

내 조국의 하늘은 낮이나 밤이나

주체철의 불노을이 타오르고

천지개벽한 사회주의대지는

날바다를 밀어번 간석지 대평야로

넓어지고 더 넓어지누나

그 얼마나 멋진 소식들이나

내 나서 자란 평양의 정든 거리에는

궁궐같은 새집들이 줄줄이 늘어

금수강산을 펼치시는 노래

내 나라는 땅이 넓어 큰 나라되나

주체의 태양빛이나 위대한 나라

이 땅은 삼천리라 끝이 있어도

내 조국은 넓이로 쟁수 없어라

백두산군 높이 모셔 위대한 나

그렇더라

백두령장의 기상파 담력을 안고

백승만을 떨치는 선군의 나라

령도자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굳게 뭉쳐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일심단결의

대장국

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자주화위

업수행과 나라들사이의 친선판

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

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안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

리었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

였다.

손님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

증국 공안부장은

대결정책은 북남관계개선의 근본장애

지금 북남관계의 앞길에는 또다시 엄중한 장애와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 이번 예비회담은 북남관계개선의 물이 열리게 될 역사의 순간을 고대한 온 민족과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에 게 펴다란 우려와 실망만을 안겨주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북남관계개선의 출로가 보이지 않는다고 내외여론들이 평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것 아니었다.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북과 남이 대화에 런하는 텁장과 자세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대화를 통해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민족의 출로를 열어나가려는 텁장이자 면 남조선당국은 이 기회를 리용하여 우리에게 협상의 책임을 넘겨줘워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우리에 대한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고 저들의 불순한 기도를 실현하려는 텁장이었다.

남조선당국은 말로는 《대화》를 운운하였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대화에 불성실하였으며 그 막판에서 반공화국 모략과 북침전쟁소동에 열을 올렸었다. 이번 군부회담에서 그들은 북남사이에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명백한 대안도 없이 무작정 저들의 주장만을 고집하며 대화의 진정성이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남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이번 예비회담이 파탄된것은 남조선

현실은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이 전환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가 도저히 풀릴수 없고 협상의 출로가 열리지 못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당국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은 북남관계개선의 근본장애이다.

북남관계는 민족의 운명, 조국통일의 전도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민족내부문제인 북남관계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주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해결될수 있다. 그것은 편연적으로 자기 동족에 대한 민족의 출로를 열어나가려는 텁장이자 면 남조선당국은 이 기회를 리용하여 우리에게 협상의 책임을 넘겨줘워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우리에 대한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고 저들의 불순한 기도를 실현하려는 텁장이었다.

남조선당국은 말로는 《대화》를 운

간신히 열렸던 북남대화들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다 파탄된것도, 이번의 군사회담결과도 그 근본원인은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북남대화를 하우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결조동에 열을 올렸다. 피뢰군부는 우리의 대회제의에도 불구하고 북군의 애전술훈련과 해군특수전단원의 해상침투훈련, 공군의 북침선제공격연습 등 하늘과 땅, 바다에서 전쟁장난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았다. 지어 군사분계선밀에서까지 북침전쟁의 회학내를 절게 풍기였다. 또한 통일부 역시 국우보수단체들에 보조금까지 불하하며 반공화국모략과 대결조동을 조장하였다. 통일부 장관인은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에 대한 그 무슨 《조치》와 《조치》를 두고 있다. 민족애를 구현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와 단합의로 선을 조국통일을 위한 6 0여년간의 통일투쟁과정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파악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남조선당국의 《대북

정책》은 폐를 낸다. 동족을 적대시하며 해치기 위한 반민족적인 대결정책이다. 자기 동족을 적으로 대하며 대결을 추구한다면 북남관계는 어차피 과정에서 치닫게 된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분별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우리가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주장을 하기도 자기 민족의 제일이라는 확신, 반드시 하나로 되어야 할 겨레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민족애를 구현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와 단합의로 선을 조국통일을 위한 6 0여년간의 통일투쟁과정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파악되었다.

남조선당국은 《대화》를 운

북남관계가 개선되자면 남조선에서 반공화국대결정책이 하루빨리 전환되어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의 길이 열리자면 남조선당국이 대결의 텁장으로부터 화해와 단합, 통일의 텁장으로 돌아서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반공화국대결정책에 계속해 여덟달수록 북남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엄중히 위협당하게 된다. 그들이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불장난소동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통일국민사들의 배우과 접촉을 차단하며 대결을 추구한다면 언제 가도 북남관계는 개선될수 없다. 오늘의 엄혹한 사태 앞에서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남조선동지배들의 동족대결정책이 민족운명개척의 압박에 얼마나 파국적인 후파를 미치는가를 절감하고 있다.

동족대결은 나라와 민족을 동진 반역자들의 생존방식이다.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자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하려는가 하는 것은 이미 역사가 보여주었다.

북남관계개선이 절박한 시대적과제로 나서고 있는 지금 누구도 그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권리가 없다. 그러한 행위는 역사에 두고두고 미국반역의 죄악으로 락인하고 겨례의 종업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겨례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는 결코

자주로 번역하고 평화로 아름다움 2 1세기의 미래도 밝은 것이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동료들에게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선군정치는 나날이 백승의 위력을 유포하고 있으며 이남의 반통일조류를 극복하고 민족주와 대단합에 텁장으로서 자주통일실험의 의료하고 한민족을 주고 있다.

서울의 한 자유기고가는 글에서 이북의 통대야말로 민족존엄의 상징이고 나리의 평화와 민족의 존엄을 빛내여 주시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 시야말로 우리 민족의 운명과 미래, 행복의 대표자이시고 중심이시다.

우리 민족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모시려 세계정치무대에 당당하고 막강한 민족으로 통증하고 체험하는 과정에 그들자신이 스스로 세득한 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

민들은 민족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담보해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받들고 끝까지 따르려는 자기들의 굳은 맷세를 담아 이렇게 심장으로 웨치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누구이든 정의를 사랑하고 평화를 키우려면 여길다면 그 정의의 상징이시고 평화의 수호자, 이북의 정벌자로서의 이북의 대표자이시고 중심이시다.

지금도 이 남에서는 북을 해치기 위한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전쟁준비가 다그쳐지고 있다.

자신과 가정, 겨례와 인류의 미래가 걱정되거든 북의 선군정치를 따르라.』

본사기자 장 윤남

세계계도에서 침략 전쟁의 불길을 터뜨려 《평화의 전화관》, 〈페로왕국〉, 〈책악마〉로 유명한 배격을 받고 있는 악의 본산 미국이 아무리 날뛰어도 정의와 평화의 수호자, 이북의 정벌자로서의 이북의 대표자이시고 중심이시다.

『요즘 남쪽에서 선군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도 이 남에서는 북을 해치기 위한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전쟁준비가 다그쳐지고 있다.

정의의 총대로 지구의 축을 돌리는 이북의 선군정치가 있어 민족통일은 확정적이며

최월순

남조선의 한 통일운동체성원은 전쟁위기가 가셔질줄 모르는 이 땅에서 우리 겨례의 운명은 선군정치를 지켜주고 있다. 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기에서 전쟁위기가 한때는 비단을 피부에 차운 미군이 되었지만 그 정의의 상징이시고 중심이시다.

지금도 이 남에서는 북을 해치기 위한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전쟁준비가 다그쳐지고 있다.

정의의 총대로 지구의 축을 돌리는 이북의 선군정치가 있어 민족통일은 확정적이며

그무승

『민생고를 데려주고 회

장을 주겠다.』느니, 『서민들에게 회당을 주는 《정부》가 되겠다.』느니 하고 너스레를 떨면 현 남조선집권세력이 빛어낸 현실은 이처럼 과국적이다.

악정이 있는 곳에서 민생활은 도란에 빠지고 인민들은 생존권마저 유린당하기 마련이다.

남조선현실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조선 각계는 현 통치자들의 집권기간에 인민들의 고통과 불행이 증대되어 남은 기간에도 그 어떤 회망이나 기대도 가질수 없게 되었다고 물을 털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올해 벼부리 물가가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얼마전 한 아당인사는 현 《정권》의 통치기간에 『인종이 불통파 거짓, 고통이란 무엇인가를 똑똑히 체험한 기간』으로 밝혔다.

남조선현실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조선 각계는 현 통치자들의 집권기간에 인민들의 고통과 불행이 증대되어 남은 기간에도 그 어떤 회망이나 기대도 가질수 없게 되었다고 물을 털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올해 벼부리 물가가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얼마전 한 아당인사는 현 《정권》의 통치기간에 『인종이 불통파 거짓, 고통이란 무엇인가를 똑똑히 체험한 기간』으로 밝혔다.

남조선현실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조선 각계는 현 통치자들의 집권기간에 인민들의 고통과 불행이 증대되어 남은 기간에도 그 어떤 회망이나 기대도 가질수 없게 되었다고 물을 털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올해 벼부리 물가가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올해 벼부리

침략적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오늘 미, 일, 남조선은 침략적인 위협한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에 그 어느 보도보다 열리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을 행각한 일본방위상은 남조선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벌려놓고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며 군사적 「조작」을 강화할 때 대여 모의하였다. 그들은 남조선군과 일본 「자위대」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군수물자제공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방식으로 남조선에 군사적으로 침투하고 남조선과 군사동맹을 구축하여 조선반도에 대한 침략침체행실에 다같이 참가하게 되어있다. 바야흐로 그 존재가 부각되는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은 나토에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군의 전략이 더욱 모험적으로 추진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 위험성은 나토보다도 크다. 나토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점령한다는 작전계획이 없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남조선은 우리 공화국을 핵, 미씨 등으로 선제공격하고 점령하는 행세를 하여 미군의 배후조종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미국은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 일본 해상 「자위대」 장교들을, 일본과의 합동군사연습에는 남조선군을 「참관」의 명목으로 참가시켰다. 이것은 최근년간 있어본적이 없는 매우 심상치 않은 사태발전이다. 또한 지난해 일본당국은 남조선과 수뇌급에서 「안보공동선언」을 체택하기 위한 견토를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일본 「자위대」가 남조선군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일본, 남조선사이의 새로운 군사적결탁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체계를 완성하려는 미일의 행동이 본격적으로 달그쳐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준다.

지금까지 미국은 남조선과는 「호상방위조약」, 일본과는 「안보조약」을 통해 3각군사동맹의 기틀을 형성유지해왔다. 이제 일본이 남조선

과 「안보공동선언」을 체택하고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등을 체결하면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조작책은 사실상 법률적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된다.

미, 일,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이 조작되면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 미군의 전략이 더욱 모험적으로 추진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 위험성은 나토보다도 크다. 나토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점령한다는 작전계획이 없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남조선은 우리 공화국을 핵, 미씨 등으로 선제공격하고 점령하는 행세를 하여 미군의 배후조종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이전에 일본군과 함께 일본군과 「자위대」를 협력해 미군의 전략을 전진해내려놓고 있으며 전쟁준비태세를 더욱 완성하기 위한 군사연습소동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미군의 전략으로 아시아판나토를 형성하고 그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지역을 저들의 세력권안에 끌어넣으려 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고리로 되고 있는 것이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이다.

미국은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고 발동하여 아시아지역에 대한 지배와 통제권을 틀어쥐려고 하고 있으며 일본군과 미군의 침략적제어에서 아시아전략에 적극 협력, 가담하여 아시아의 「영화국가」라는 외피를 쓰고 해외팽창과 군사대국화의 길로 내딛고 있는 일본군과의 저항을 통한 통제권에 경각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아시아인들과 세계평화에 호의인들이 미군의 전쟁정책과 일본의 재침

제를 통해 「유사시」 일본 「자위대」 무력

을 조선전쟁에 끌어들여 아시아사람

들끼리 싸우게 함으로써 저들은 필수

로 인적, 물적 손실을 적게 내려놓으려고 있다. 미군의 부추김에 일본은 「자위대」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새 「방위계획대강」을 제정한 것도 그와 관련된다.

조성된 정세는 아시아인들과 세계평화에 호의인들이 미, 일, 남조선의 전쟁정책과 3각군사동맹조작책 등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전반적인 세계정세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 지역에 조성되고 있다. 민족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불길은 불피워 아시아와 세계 여러 지역에 태풍처럼 전개될 것이다. 그에게 되어야 하는 아시아와 나아가 세계가 또다시 파국적인 전쟁재난, 핵참화를 겪게 될 수 있다.

전쟁의 불길은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조작들을 짓부시는 것은 새로운 조선전쟁, 세계전쟁의 위험을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현시기 3각군사동맹조작동을 분쇄하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미를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이다. 이 투쟁은 아시아나라들의 자주권과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